

군민 체감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바이오·화장품 분야 창업교육

임실군, 31억원 모금...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양궁 꿈나무 육성 지원 등 9개 사업 추진

임실군이 지난 3년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외롭고 아픈 주민을 보듬고,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고, 청년에게는 희망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감동을 주고,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 6억9,2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 10억4,300만원, 2025년 13억 6,800만원을 모금하며 3년간 총 31억 300만원을 모금했다.

이 기부금을 활용해 교육·복지·청년·문화·지역경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금 사업을 추진하며, 기부금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는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농촌유학 민집 재생사업 등이 있으며, 올해는 △반려누리 학습센터 기숙사 건립 지원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저소득층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문화예술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기금 활용 분야를 확대했다.

기부자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확



임실군이 지난 3년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외롭고 아픈 주민을 보듬고,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고, 청년에게는 희망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감동을 주고,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인한 뒤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양궁 꿈나무 육성지원사업과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통해 기부자의 뜻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기금활용의 투명성과 제감도를 높이고 있다.

임실군 고향사랑기부금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복지와 교육, 청년, 문화, 농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되

면서, 기부금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득수 군수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임실을 응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하게 마련된 기부금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지역의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 창업 아카데미 1기 개강식 열어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8월 10일, 2026 바이오산업 창업 아카데미 1기 개강식을 열고 바이오·화장품 분야 예비창업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합숙 창업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2026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바이오·화장품 분야 창업 자변 확대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연구원은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예비창업자·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1기에는 30명이 선발, 1기 교육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남원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 무료와 교육 기간 중 숙박, 식사, 교통비가 일부 지원된다.

첫날은 입교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문을 연 교육 과정은 '바이오·화장품 창업 트렌드'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바이오·뷰티 산업 동향과 소비자 취향을 분석하며 창업 기회를 모색했으며, 오후에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시장성 검증 실습' 등 실질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과정이 집중적



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창업 아이디어 팀별 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200만 원), 우수상(100만 원), 장려상(50만 원) 등을 시상할 예정이며, 연구원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2기, 3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해 총 90여 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료생들에게는 내년도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 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해,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철 연구원장은 “남원은 지리산권 천연자원과 화장품 생산시설,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바이오산업 특화 도시인 만큼, 수료 이후에도 연구원의 체계적인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남원에서의 창업과 성장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가을같이' 신청 접수

순창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영농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하반기 가을같이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가을같이란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잘라 토양에 섞은 뒤 깊이 갈아엎어 메탄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영농활동이다.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춰,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당해 연도 기본작불금 대상 농지 보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농지가 볏짚 절단 및 경운 등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 ha당 46만 원의 활동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동계작물 재배지, 볏짚 수거 필지, 유사 사업 중복 참여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 열려

남원시는 지난 10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도입 신청 절차 및 수요조사 일정 △우즈베키스탄



등 신규 협약(도입) 국가 소개 △고용주(농가) 준수사항 및 인권 보호 지침 △무단이탈 방지 대책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안내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신임회장 김모수 선임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의결을 통해 신임회장으로 김모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된 김모수 회장은 “지역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눔 문화확산에도 앞장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모수 회장의 임기는 금년 8월 11일부터 2029년 8월 10일까지 3년이며 오수 라이온스 클럽 회장과 임실내 사랑꿈나무 회장 및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역임하며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HPV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이며,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항문 상피 내 종양의 78% 이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지원되던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만 12세(2014년생) 남·남·청소년까지 확대됐다.(12~17세 : 2008~2014년생, 18~26세 : 1999~2007년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접종 백신은 기존과 동일하게 HPV 4가 백신으로 첫 접종 시기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달라져 만 14세까지는 총 2회(0개월, 6개월)이며, 만 15세부터는 총 3회(0개월, 2개월, 6개월) 접종한다. 접종 기관은 남원시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9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하에 접종이 가능하다. 관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민원처리 더 빨라진다

북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순창군이 북합민원 처리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원스톱서비스 대상 민원 8종을 확대하며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강화에 나섰다.

군은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북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북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 사무를 기존 38종에서 46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협의와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원스톱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민원은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식품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축산기간 폐업 확인서 등 군민과 기업의 이용이 많은 8개 민원사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하나의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 부서 간 협의와 확인 등 복합적인 행정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괄 처리받을 수 있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국 정구 꿈나무들 순창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초등학교정구대회 개최

순창군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순창군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에서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초등학교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정구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에는 전국 64개 팀,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엘리트 선수부와 스포츠클럽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엘리트 선수부는 남녀 단체전과 개인복식, 개인단식 종목으로 치러지며, 스포츠클럽부는 남녀 단체전과 개인복식 종목에서 우승자를 가린다.

군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선수와 지도자, 가족 등이 순창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와 경기 운영 지원체계를 정비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모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